

깨달음과 치유를 위한 문답법

- 샷상(Satsang)과 선문답 - *

김 성 순

원광대학교

〈요 약〉

샷상의 구성원들은 세간 안에서 바로 현재의 순간에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개인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중시한다. 출세간의 종교로 인식되어 있는 선불교 역시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샷상의 스승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샷상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공동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교단과 같은 제도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선불교의 조사들은 사원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승되어 온 교의와 실천을 제자들에게 교육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선불교와 샷상 모두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무지를 일깨우고, 자성을 바로 보는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샷상과 선문답 둘 다 제자(혹은 참여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으로서 문답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구의 샷상이 현실 안에서 인간이 겪는 갖가지 고통과 문제를 치유하려는 친절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선불교의 선문답은 원초적 무지를 해결함으로써 존재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교육적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이 선문답을 통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깨달음이 열리는 현상을 언하변오(言下便悟)라고 한다. 샷상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문답을 통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서 삶의 태도나 인식까지 전환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핵심 주제어: 샷상(Satsang), 선문답, 깨달음, 이심전심, 언하변오, 견성, 트랜스미션(Transmissio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I. 서론

교육의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문답법은 텍스트 학습이나 일방적인 시청각 매체의 전달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그 교육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통이나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는 문답법이 더욱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서구의 뉴에이지 커뮤니티에서 주로 실천하는 ‘삿상(Satsang)’¹⁾에 대해 소개하고, 삿상에서 주로 실천하는 문답법과,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스승이 제자를 교육하는 방식인 선문답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삿상은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문화로서, 인도 출신의 영적 스승들이 서구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식시킨 뉴에이지 문화이다. 심지어 현재 국내의 각종 수련단체들 –특히 요가수련단체– 역시 이 삿상을 많이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삿상을 ‘소개’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뉴에이지 수련문화의 중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해보는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학자들²⁾은 물론 서구 현지의 관련 학자들 역시 뉴에이지 커뮤니티의 중심 활동인 삿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는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인도 출신의 특정 영적 스승이 이끄는 커뮤니티에 대한 논문에서 삿상에 대해 언급하는 하나의 장이 등장하는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아직까지 연구자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종교적 현상 내지 사회문화 현상인 삿상을 동아시아 선불교의 선문답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양자가 갖는 기능적 지향점, 스승의 위상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 역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선문답과 서구의 삿상은 둘 다 고대 인도의 종교전통에서 기원, 전래된 것

1) 인도철학에서 Satsanga, Satsangam, Satsang(San, सत्सङ्ग, सत्=sat=true, sanga=company)이 의미하는 것은

① 지고의 진리와 함께 하는 것, ② 구루와 함께하는 것, ③ 진리에 대해 말하고, 듣고,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 고대의 삿상은 경전을 읽거나 듣고, 반추하고, 토론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전 어구의 근원에 대해 명상하고, 그 의미를 일상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2) 국내에서 서구와 한국의 뉴에이지 문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 학자로는 전명수와 우혜란 등을 들 수 있다. 전명수는 뉴에이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저술, 서구와 한국의 뉴에이지 문화에 대한 연구 등을 내고 있으며, 우혜란은 미국 내에 진출한 한국 수련단체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집문당, 2009). 「뉴에이지 운동에서의 개인과 사회: 사회학적 접근」, 『한국종교』 제32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8.

우혜란, 「한국 명상단체의 세계화 기획과 서구 사회의 대응 – ‘단월드’와 ‘마음수련’을 중심으로 –」, 『신종교연구』 제25집, 한국신종교학회, 2011.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종교현상 –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제19집, 한국신종교학회, 2008.

으로서, 현지의 문화적 배경과 상호교섭의 작용을 거쳐 정착한 종교(적)문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양자 모두 주로 문답법을 이용하여 제자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교육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으나, 명백하게 다른 지역적, 문화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차이 역시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결국 선문답과 샷상을 공통적인 교육방법론의 맥락에서 비교하는 본 연구는 현대의 뉴에이지 종교현상을 소개하는 연구성과와 함께 문답법의 교육학적 의미를 다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불교의 선문답과 달리 서구의 샷상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를 샷상 커뮤니티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나, 자신들의 샷상 집회를 녹화한 동영상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스승과 구성원의 육성으로 고백하는 신념(Faith),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통의 문제, 깨달음에 관한 그들 자신의 개념 정의 등을 걸러지지 않은 형태로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뉴에이지의 샷상과 동아시아 불교의 선문답

1. 뉴에이지와 만난 인도종교 전통

샷상(satsang)은 인도의 종교 전통에서 연유한 것으로 어원적 의미로는 ‘진리와 함께하는 것(sans, sat+sang)’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깨달은 스승(Enlightened teacher)을 모시고 함께 모여 앉아서 짧은 얘기를 듣고 문답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말기 외국 출신-주로 인도출신-의 ‘깨달은’ 스승(Guru)으로 알려진 몇몇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이용했던 방식이 바로 샷상이었다. 샷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임에 참가한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샷상에 참가하는 구성원 간에는 아무런 관계나 조직 내지는 회원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종교조직과는 다르다.

특정 종교문화가 다른 문화권 안으로 유입되면 언제나 문화 간의 상호교섭을 거쳐 재해석의 요소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지금 뉴에이지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샷상 역시 인도 종교현상이 현대의 서구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³⁾ 인도에서 영적인 스승 구루가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일종

3) Frisk, Liselotte, "The Satsang Network"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Volume 6, Issue 1, 2002, pp. 74.

의 짧은 법회 형식인 샷상이 서구로 건너온 이후 뉴에이지 계열 커뮤니티들의 주요 활동이 된 것이다.⁴⁾

그렇다면 21세기 현대의 샷상은 어떠한 사상 내지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 샷상 커뮤니티 중의 하나인 “스리 라마나 샷상그룹(Sri Ramana Satsang Groups)”의 샷상 광고 문구를 통해 그들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실천의 목표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그룹은 오직 바가반 스리 라마나 마하르쉬의 가르침에 집중할 뿐 어떠한 비용이나, 기부도 받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거주영역 내에서 스리 라마나 샷상그룹의 호스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포맷을 추천합니다: 주 1회 혹은 월 1회의 자아 탐구 혹은 자기 지각의 실천을 함께하며, 스리 바가반의 가르침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거주영역 내의 스리 라마나 샷상 그룹에 관심이 있다면 uarelove@yahoo.com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십시오. ... 중략 ... 원한다면 당신은 개인과 그룹의 카테고리 양쪽에 등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⁵⁾

인용문에 따르면 이 샷상 그룹의 주요 관심사는 ‘자아 탐구(Self-inquiry)’ 내지 ‘자기 지각(Self-Awareness)’의 실천에 집중되어 있다. 설령 불교적 성격을 띤 샷상 커뮤니티라 해도 ‘무’와 ‘공’에 대한 교의적 고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샷상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개인으로서의 마음을 버려두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과 실생활을 보면 양가적인 것처럼 보인다. 커뮤니티에서 강조하는 체험이나 관계들, 치유의 방법들을 보면 개개인의 자아는 상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천적으로 중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샷상 커뮤니티들의 또 다른 핵심적인 가르침은 “깨달음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
- 4) Frisk, Liselotte, 앞의 논문, p. 64. 20세기 초에 이르러 소수의 동양 종교 영성 조직이 서구에 자리 잡게 되는데, 1893년 미국에서 스와미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1902)에 의해 시작된 힌두 베단타운동은 그 초기 조직 중의 하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몇몇 동양의 스승들이 서구로 건너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1920년 미국에 Self-Realization Fellowship(SRF)을 만든 스와미 요가난다(Swami Yogananda, 1893-1952)였다. 1963년 이후에 이르면서 서구에서 동양전통이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꽃피게 되는데, 뉴에이지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던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1931-1990)의 커뮤니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쇼 라즈니쉬는 논란이 많은 인도인 구루(guru)로서 주로 Bhagawan Shree Rajneesh로 불리며, 1980년대 초 미국 북서부 오레곤주의 방대한 교외지역에 라즈니쉬뿌람이라는 수행자 타운을 건설했던 사람이다. 그의 가르침의 주된 목표는 제자들을 모든 사상과 신앙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재교육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과 신성(神性) 간에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물질 세간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힌두리즘에서는 전통적인 ‘산야사(sanyasa)’가 세간을 등지는 것을 포함하지만 오쇼가 이끄는 종교운동에서는 산야사를 ‘영적 탈세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단지 마음만 변화시키면 될 뿐 아무런 외적 변화가 필요 없었다. 따라서 오쇼운동에서의 산야신은 어떠한 욕망도 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5) <http://uarelove1.tripod.com/SRC.htm> (쉬리 라마나 커뮤니티 사이트) 이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스리 라마나 샷상 그룹이 미국, 캐나다, 인도, 두바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레바논, 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토고 등 국가의 여러 도시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쉽지 않으며, 또한 깨달은 자 역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종교 전통의 ‘깨달음’에 관한 인식은 기독교적 배경의 서구문화와 만나 변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구의 기독교적 교리 안에서 구원, 영원한 생명, 혹은 하나님의 왕국 등은 소수의 전문 수행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보편의 구원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서구인들의 종교적 감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고의 염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샷상 네트워크 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⁶⁾

또한 인도를 포함한 동양 종교문화권에서는 영적인 열망이 종종 세간 생활에 대한 포기(금욕)와 연결되지만, 서구, 특히 기독교국가에서는 세간을 포기하는 전통이 없으며, 현재의 종교운동에서 출세간을 선언하는 것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 샷상의 지도자인 영적 스승들 역시 ‘세간’ 안에 살고 있으며, 출세간의 가능성이나 금욕주의 고행은 구성원들의 관심 밖이다. 샷상에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모든 이가 바로 현재 순간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별한 신앙은 장려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절대적 진리로 가르쳐질 수는 없으며, 대신에 개인적인 깨달음의 체험이 강조된다. 샷상의 이러한 성격은 믿음에서 체험으로 현대 종교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⁷⁾

샷상에 참여하는 수많은 뉴에이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관심은 오히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Well-Being)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뉴에이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반 몬산토(Anti-Mosanto), 반-유전자변형식품(Anti-GMO), 환경운동, 반전운동, 월스트리트 점령운동(Occupy-Wall street) 등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현세에서 더 잘 살기 위해 명상을 실천하고, 유기농·무농약 식품을 먹으며, 근엄한 의식(Ritual) 대신에 신나는 락 음악과 댄스를 즐기며, 스승과 수평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서서히 깨워가고 있는 것이다.

2. 동아시아 선불교의 선문답과 깨달음

선의 목적은 깨달음이고, 선에서의 깨달음은 곧 자성을 바로 보게 되는 견성(見性)이다. 선문답은 선불교의 스승들이 제자의 깨달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했으며, 후대에는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의 기록인 각 조사(祖師)들의 선어록이 생산됨으로써 공안선(公案禪)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선사들의 어록에는 제삼자의 해설인 평창(評唱)과 짝막한 주석인 착어(着語)를 붙여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전의 선문답이 지니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선문답을 통한 교육의 다양한 모습이기도 했다.⁸⁾

6) Frisk, Liselotte, 앞의 논문, p. 76.

7) Frisk, Liselotte, 앞의 논문, p. 80.

선문답은 형식적으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가는 교육적 행위로서,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는 가르침과 스승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문답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자가 수행과 깨침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문과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선문답은 기본적으로 문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에게 물음을 제기하고 그 물음에 대한 스승의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문답이라 해도 스승이 스스로 제자에게 묻고 스승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제자가 물으면 스승이 그에 대하여 답해주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묻고 제자 스스로가 답하는 경우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또한 굳이 문답의 형식이 아닐지라도 스승이 제자에 대한 선의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든가 스스로의 체험으로 얻은 깨달음을 토로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선문답의 범주에 두루 포함된다. 조사의 선문답을 기록한 선어록에서 화두 참구의 주제를 정하는 공안(公案) 역시 넓은 의미의 선문답이라고 볼 수 있다.⁹⁾ 대부분의 공안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문답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대화법이며, 일상의 간결한 어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¹⁰⁾

일반적으로 조사선의 전통과 그 주요 수행론인 선문답의 사상적 정초를 세운 이는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으로 알려져 있다.¹¹⁾ 혜능에 이르러 중국 선불교는 선정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으려는 이전까지의 수행 경향을 따르지 않고, 선정과 지혜는 본래 하나라는 정혜불이(定慧不二)를 주장하여 수증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라는, 즉 수오불이(修悟不二)의 수증관은 혜능에 의해 돈오돈수(頓悟頓修)로 표명된다.

돈오돈수란 깨닫기 전의 미혹한 입장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수행을 통하여 점차적인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자성을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수행 역시 자성 밖의 일이 아니라 자성 그 자체의 일이 된다. 이는 마음의 본질을 이원적 중생심에서 일원적 불심으로 보게 되는 심성관의 변화를 의미하며, 수증관에서 보면 수행 위주에서 깨달음 위주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선의 무게중심을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옮긴 것이 바로 혜능의 업적으로서, 남종선인 조사선에서 오로지 견성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혜능에게 있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이 혜능에서 비롯된 설법과 문답을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수행법은 마조

8) 김호귀, 「선문답의 현대적 해석 방식」, 『韓國禪學』 제26호(한국선학회, 2010), pp. 147-148.

9) 질문이 던져지면 거침없이 바로 답하는 이른바,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공안의 기본형식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선사들의 지도법에 다른 형태의 사물과 지도가 더해지다가 더욱 과격한 신체동작 등의 행위문답으로 발전하면서 여기에 언어문자로 지도하는 방법이 더해지고 결국에는 화두참구라는 수행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10) 인경(印鏡), 「공안선과 간화선」, 『철학사상』 제21(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p. 80.

11) 동아시아 선불교의 시작점이 되는 중국 선불교, 특히 혜능 이후의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의 형태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문답의 장에서 직지인심과 언하변오(言下便悟)라는 형태로 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12) 김태완, 『祖師禪의 실천과 사상』(장경각, 2004), p. 127.

도일(馬祖道一, 709-788)과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을 거치면서 설법과 문답을 통해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실현하는 중국 특유의 조사선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견성성불이라는 용어는 이미 『단경』에 나타나고 있으나, ‘직지인심(直指人心)’의 개념은 마조의 어록에서야 나타난다. 견성성불은 혜능에게서 이미 강조되었지만, 설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직지인심의 선법은 마조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조 이후의 조사선은 스승이 제자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여주는 직지인심, 그리고 자성을 바로 보게 됨으로써 불성을 깨닫는 견성성불이 핵심적인 수증론을 이루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견성이 주로 “말끝에 바로 깨닫는” 언하변오(言下便悟)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¹³⁾ 이러한 언하변오의 견성 체험을 대표할 수 있는 혜능의 사례를 『단경』 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보았는데, 혜능은 한 번 듣고서 마음이 밝아져 곧 깨달았다.¹⁴⁾

오조(五祖)께서 밤중 삼경에 혜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었다. 혜능은 한 번 듣고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¹⁵⁾

위의 두 인용문에 등장하는 ‘언하변오’ 즉 말끝에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견성의 체험이 바로 혜능 이후의 조사선의 주요 특징이다. 언하변오가 조사선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하변오의 견성체험이 조사가 행하는 상당설법과 선문답을 통하여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스승이 제자의 마음을 곧바로 보게 하고(직지인심), 이러한 문답의 말끝에 제자가 자성을 보게 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견성성불) 구도인 것이다.

하지만 혜능의 체험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종의 교의와는 달리 『금강경』이라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정말로 직지인심 내지 이심전심에 근거한 깨달음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선종의 교육방법이 바로 상당설법(上堂說法)이다. 상당설법은 말 그대로 법당에 올라 법을 설하는 것으로서, 이때 조사가 설하는 법 안에는 당연히 대승경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조사선의 선법 즉 교육내용은 상당설법¹⁶⁾과 선문답이라는 두

13) 김태완, 앞의 책, p. 130.

14) 忽見一客, 讀金剛經, 惠能一聞, 心明便悟. 『六祖壇經』(燉煌本), 大正藏 48: 2007, 0337a21-0337a22.

15) 五祖夜至三更, 喚惠能堂內, 說金剛經, 惠能一聞, 言下便悟. 『六祖壇經』(燉煌本), 大正藏 48: 2007, 0338a15-0338a16.

16) 선 어록에 등장하는 상당설법을 분석해 보면 주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와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마음은 본래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하여 범부의 미혹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하여 성인의 해탈한 마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이 마음에 관한 설명에 근거하여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며,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설명과, 수행은 어떤 것이며 깨달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설명한다.

가지의 핵심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실천하는 것¹⁷⁾으로서, 교학적 내용이 온전히 배제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마조의 3대 제자의 한 사람인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는 마조선을 그대로 계승하여 선원 제도로 정착시켰다. 백장은 선승이 거주하는 선 사원을 만들었는데 이제까지의 불교사원과 달리 방장·법당·승당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선원 대중이 혜능과 마조가 확립한 중국선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원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인 선사가 거주하는 방장(方丈), 불상을 모신 불전이 아니라, 부처와 동격으로 존중받는 조사가 설법하는 법당, 그리고 학인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인 승당이 사원의 주요 공간을 이루게 된다. 학인 대중은 승당에서 살면서 스승의 상당설법이 행해지면 모두 모여서 듣고, 스승과 학인, 그리고 학인과 학인 간에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으며 공부했다. 혜능에서 시작하여 마조에 이르러 완성된 중국선이 백장에 와서 외적인 형식까지 완비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선어록을 읽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상당(上堂)’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상당은 제자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곳인 설법장인 법당으로 오르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선문답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사가 상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문 내지 선문답의 경우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처럼 선문답이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인 ‘법당(法堂)’에 관한 설명을 발췌해 보기로 하겠다.

온 집안의 대중은 아침에 묻고 저녁에 모여야 하고, 장로가 법당에 올라 설법을 할 때에 일을 관장하는 이나 대중이나 모두 줄지어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손님과 주인이 문답을 계속하여 종지를 격양하는 것은 모두가 법에 의해 산다는 것을 표시한다.¹⁹⁾

인용문을 보면 온 집안(사원)의 대중이 아침저녁으로 상당설법을 듣고, 문답하는 형태로 공개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거나, 제자가 스승의 거처를 찾아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문답에서는 사제 간의 일대일의 문답이 오가기도 했으며, 방(榜)이나, 할(嗔), 먹살잡이 등의 폭력적인 방법이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 선문답이든 간에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공안집 내지 조사들의 어록에 전해진다는 것은 선문답이 기본적으로 공개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그토록 강조했던 선불교에서 각종 선어록들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깨달음의 체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대 일로 이루어지는 선문답의 현장에 부재했던 이들은 선어록

17) 김태완, 앞의 책, p. 129.

18) 김태완, 앞의 책, p. 338.

19) 其闔院大衆朝參夕聚. 長老上堂陞坐. 主事徒衆雁立側聆. 賓主問酬激揚宗要者. 示依法而住也. 『勅修百丈清規』, 大正藏, 48: 2025, 1157a14-1157a16.

을 통해 선문답 당시의 치열한 긴장을 느끼면서 깨달음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유, 가르침의 공유현상은 상당설법에서도 나타난다. 선사가 상당설법을 하기 위해 당에 오르면, 바로 이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사원 내의 대중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원 내의 모든 대중이 모여서 듣게 했던 상당설법 역시 선어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전달하고 공유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선종에서 상당설법이 제도화된 것은 백장회해에 의한 선종사원의 독립과 법당의 건립 이후의 일로서, 문답을 통해 건성을 추구하는 조사선은 해능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선사가 대중을 상대로 설법하는 이른바, 시중(示衆)은 마조에서부터 행해진 것이었다. 결국 마조 이후의 조사선은 상당시중(上堂示衆)과 선문답(禪問答)이라는 교육 방법론을 통하여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스승의 가르침을 입어 제자가 견성성불을 하게 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Ⅲ.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의 방식

1. 스승의 위상: 조사(祖師)와 구루(Guru), 그리고 힐러(Healer)

오늘날의 서구의 샷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위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깨달은 자’로서 존경과 숭배를 받는 구루(Guru)형,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참여자들의 고통을 위무하고 치유해주는 멘토(Mento) 내지 힐러(Healer)형이다.

먼저 전자인 구루형에 대해 살펴보면, 샷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이른바, ‘깨달은 스승(Enlightened teacher)’이라야 하며, 이들은 샷상 커뮤니티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영적 깨달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사진,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오디오 카세트 등이 샷상 참여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한다.²⁰⁾ 이 첫 번째 유형의 스승에는 오쇼의 경우처럼 대부분 인도의 구루문화에 익숙한 인도 출신의 현지 구루이거나, 서구로 건너와서 활동하는 이들이 속해있다. 물론 인도 출신이라도 모두

20) Rada Soami 계열의 수행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스승이라는 의미의 ‘샷트구루(Satguru)’는 진리의 체현이자, 사실상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샷트구루는 자신의 신도들을 지고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리고 윤회의 사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믿어진다. 샷상에서는 이러한 샷트구루로서의 영적 스승의 존재가 무척 중요하며, 사망 등으로 인해 함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대한 사진의 형태로 샷상에 현존하게 된다. Sudir Kakar,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Healing: Siblings or Strang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3, No. 4, 1985, p. 844.

스스로를 신적인 위치로 격상시켜 종교적 성격의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구 샷상 커뮤니티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스승은 소수이며, 구루숭배의 종교적 성격으로 인해 언론과 외부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다음 두 번째 멘토 혹은 힐러형 스승들의 경우를 보면 인도 등지에서 건너온 1세대 영적 스승에서 사사받은 서구출신의 2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보인다. “Journey Satsang with Brandon Bays”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샷상에서는 참가자가 스승인 Brandon Bay와 단 둘이 무대에서 대화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가자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듯 얘기하면 Brandon Bays는 그 고백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형식으로 참가자의 상승적 깨달음을 이끌어낸다.²¹⁾ 샷상의 스승인 Brandon Bay는 단순히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며 함께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시종 미소 띤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때때로 유머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하고 마지막에 서로를 포옹하는 모습은 멘토 혹은 상담자의 태도에 가까우며, 전통적인 샷상 혹은 선불교의 조사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B.B TV라는 자체적인 방송 채널도 가지고 있는 Brandon Bays의 각종 샷상 자료들을 보면 True Forgiveness, Heal the world, Consciousness, The Journey 등의 주제가 눈에 띈다. 결국 이 샷상의 리더인 브랜든 베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한 치유(Healing)인 것처럼 보인다.

국제적인 영적 스승(Spiritual Teacher)이자 힐러(Healer)로 표현되는 Lynette는 “Healing Transmissions and The Core Alignment: Live a peaceful, daily life on all levels”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샷상 비디오에서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위한 힐링을 실천하기도 한다.²²⁾

그들의 홍보자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힐러’로 표현되는 LAnahata는 1분간의 명상 비디오(“Powerful 1 min Healing Transmission: Blessing of Joy”)를 통해 시청자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비디오 안의 여성 힐러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리는 맑은 날씨의 초원을 배경으로 밀교의 무드라 내지 레이키(Reiki)와 유사한 손동작을 하면서 시청자를 향해 축복을 주기도 한다.²³⁾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지도자와는 달리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스승들은 대부분 대화보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일방적으로 참여자들을 향해 설교하듯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유형의 지도자들에는 인도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서구로 영역을 확장한 이들이 주로 많은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스승에는 서구출신의 현지인이 많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유형에 속하든 기본적으로 샷상의 스승들은 참여자

21) <http://www.youtube.com/watch?v=tWj4n5VzI7w>

22) http://www.youtube.com/watch?v=v_IeEG29V3Y

23) http://www.youtube.com/watch?v=7-J_zJgP2A&feature=relmfu

(신도)들에 대한 설교나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것이다. 샷상의 스승은 함께 질문과 응답을 나누는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중들의 깨달음까지 유도하기도 한다. 스승의 직설적인 질문은 참가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게 되며, 이 과정에서 깨달음의 세세한 부분에 관한 것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이들 샷상의 스승들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거나 이성친구를 갖고 있으며, 알콜과 담배 등에 대한 금제 규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이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스승에게서 확인을 받게 되며, 혹은 드물게 더 나이 많은 샷상 스승에게 확인을 받는 수도 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 확인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샷상을 별도로 열수도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보이는 조사의 절대적인 위치와는 달리 서구의 샷상 커뮤니티에서는 깨달은 스승이 존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이가 이미 깨달았다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 스승과 참여자 간의 위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²⁴⁾ 샷상에서는 ‘질문(questioning)’ 그 자체보다는 깨달음의 ‘공유(sharing)’를 더 많이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깨달은 이들이 스승으로서 샷상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서구의 샷상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음에 관한 뭔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분명히 서구의 샷상은 동양의 전통보다는 평등의 개념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샷상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비에도 드러나는데, 서구의 경우 여성 영적 스승들의 수가 동양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샷상 문화가 서구로 건너오면서 여성 영적 스승의 숫자가 훨씬 증가하게 된 것이다.²⁵⁾

그렇다면 동아시아 선불교, 그 중에서도 육조혜능을 필두로 하는 조사선 법맥의 스승들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공동체 내에서의 가르침을 이끌어왔을까. 조사(祖師)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제자들로 구성된 선 수행공동체 사단을 이끄는 스승이었으며,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자신의 스승에게서 인가받고, 그 자신 역시 제자들의 깨달음을 검증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였다. 조사선의 법맥에서는 깨달은 스승인 조사와 불타가 그 의미상 동격이었으므로, 조사 역시 불타에 버금가는 존송을 받았으며, 그의 가르침이 기록된 선 어록도 대승 경전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위계구도는 대부분의 서구의 샷상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스승 대 참여자의 수평적인 도식과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샷상의 구루는 단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참

24) 이 부분에서 인도 출신 구루들의 샷상에서 나타나는 숭배의식은 구루에 대한 인도 현지 신앙의 박티적 성격이 샷상 안에 혼입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바로 그 점에서 많은 서구 언론과 외부 시선에 의해 질타를 받기도 한다.

25) Frisk, Liselotte, 앞의 논문, p. 77.

여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혹은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 안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서구 샷상의 스승들이 깨달음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멘토 또는 힐러로서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에 선불교의 조사들은 불타와 거의 동일한 위격을 가진 절대적 스승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러한 선불교 조사들의 절대적 권위의 배경에는 그들이 제자의 깨달음을 점검하고 인가하는 스승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마조 이후에 성립된 조사선의 어록과 전등록을 보면 당시 선 수행승들이 선을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선을 배우겠다는 발심을 하면 우선 선사(禪寺)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선사(禪師)의 상당시중을 듣거나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거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지인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발심→참문→참구(參究)→감변(堪辨)의 양식으로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참문은 선지식을 찾아가 선을 묻는 것을 청문 혹은 참문이라고 한다. 학인이 참문을 하는 경우는 상당설법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방장(方丈)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지식이 학인의 참문에 응대하여 가르침을 베푸는 방식은 설법과 문답이다. 그 설법과 문답 속에서 선지식은 언어 혹은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학인을 깨우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샷상의 스승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를 내고,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고, 칼럼 등을 쓰고, 자신의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면서 후원자들을 모아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선불교의 조사들이 선종 사원이라는 제도적 배경²⁷⁾ 안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인들을 제자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법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는 어느 정도 동일성과 차이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샷상의 스승 역시 그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샷상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 과정에서 물질적 부를 축적하여 공동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

26) 김태완, 앞의 책, p. 241.

27) 중국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선찰도 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신참부터 주지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역할과 권력서열상의 위치가 아주 분명했다. 선원 내부의 활동과 관계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든 모든 것이 규칙과 규제로써 틀 잡혀 있었다. 송대 전에는 전통적인 불교의 율과 이를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승제(僧制)가 선원에서도 그대로 쓰였다. 거기에는 계율조항들과 함께 의사결정과 행정에 관한 규칙이 들어 있고, 개개 승려들의 언행과 예절에 관한 사항들을 극도로 자세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송대에 들어 선원청규(禪院淸規)가 시행되면서 선원 생활과 규범의 집단적인 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노동, 참선, 공양, 법담, 잠자리 등이 모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규라는 새로운 규범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선은 그 이전 어떤 형태의 불교보다도 더 철저히 “집단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데일 라이트(Dale S. Wright), 윤원철 옮김,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Philosophical meditations on Zen Buddhism)』(지식과교양, 2011), pp. 239-241.

기도 하지만 교단과 같은 제도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선불교의 조사들은 처음부터 사원을 배경으로 하면서 역대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교의와 실천을 제자들에게 교육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 스승의 역할: 무지와 고통에 대한 치유

스승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시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샷상 커뮤니티와 선불교의 스승은 공히 각자의 교육의 장 안에서 자신의 교육 방식을 통해 제자(혹은 참여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선불교의 경우를 보면 사원 내에서 상당설법과 선문답을 주로 사용하여 선을 가르치게 된다. 선불교의 스승, 즉 선사들은 자신이 궁극적 깨달음을 제시할 뿐, 나머지 모든 것은 제자 자신이 체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르침과 깨침의 인연이 맞닥뜨리는 기회, 즉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무르익으면 학인의 의식이 ‘폭발(breakthrough)’하는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장(field)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에서도 제자의 의지와 선사의 가르침이 만나는 어떤 특별한 인연의 장을 강조한다. 이 장은 학인의 의식이 이미 ‘폭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선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맥락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불교 교육의 장에서 주요 도구로 쓰이는 선문답 역시 일종의 맥락 언어이다. 선문답은 그 이전의 기나긴 시간의 선 수행이 전제되어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선문답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사이에 둔 스승과 제자 간의 긴장이 있었으며, 어느 한 시점의 계기적 사건과 결합하여 문답을 통한 깨달음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선문답은 결코 선 수행이라는 맥락을 떠나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²⁸⁾ 결국 학인의 충분한 내적 준비과정(內因)과 선사의 예리한 외적 가르침의 장치(外緣)이 하나로 관통하여 줄탁동시(倅啄同時)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²⁹⁾

선사가 학인의 역량에 맞게 선문답, 말하자면 대화의 교수법을 전개하여 제자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는 방식은 ‘공감적 이해’의 방법론적 범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러한 선불교의 교육 방식은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임제 시대부터 학인의 근기와 상황을 나누고 공안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수행이 제시되는 지도법이 시행된 것이다.³¹⁾ 임제종은 제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28) 서명석, 「선(禪)과 선문답(禪問答)이 교설 상담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유」, 『교육철학』 제37집(한국교육철학회, 2006), p. 163.

29) 서명석, 앞의 책, p. 209.

30) 조상식·이학주, 「선문답(禪問答)에 대한 교육현상학적 이해: ‘범례적 이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6집(한국교육철학회, 2006), p. 136.

31) 정진희(혜달), 「공안의 표현형식과 지도법의 변화: 마조계 선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49집(한

남성적이고 거침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단의 분위기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를 중심으로 하여 간화선이라고 하는 중국적 선을 배태하게 했다.

그렇다면 서구의 샷상에서는 스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유튜브 상에 올려진 샷상 관련 비디오 파일들을 보면 전술한 것과 같이 지도자의 모습과 역할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 하나는 그야말로 교주처럼 일방적으로 참여자들을 향해 법문(Dharma talk)을 하는 종교지도자형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와 무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음과 치유의 과정을 청중과 공유케 하는 멘토형이다. 이 밖에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치유를 시도하는 힐러형도 있는데 이들은 양자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도 현지나 서구의 인도 출신 스승들이 전자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서구 출신의 스승들은 후자, 즉 멘토 내지 힐러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구에서는 샷상을 깨달은 자들(Holy Family)과 아직 깨닫지 못한 신도들 간의 토론의 장으로서 수용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평신도 즉, 미숙아(Premies)들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샷상을 이용하여 깨달은 스승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³²⁾ 구루 Mooji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웹사이트에 홈 샷상 비디오 파일을 올려 온라인 샷상을 실천하고 있다.³³⁾ 구루 Mooji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샷상인 “Kids in Satsang with Mooji”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³⁴⁾ Mooji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연령 정도의 어린이들과 무대 위에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깨달음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비디오에서는 그가 이러한 어린이 대상의 샷상에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청중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루 Adyashanti의 경우 자신이 지도하는 샷상을 음성 파일로 제작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홈페이지(<http://www.adyashanti.org/>)에 올려두고 있다. 파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는 Adyashanti 자신이 정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20여분 정도 강연하고, 후반부에는 참가자들과 대화하면서 토론하거나 질문에 응답하

국불교학회, 2008), p. 364.

32) 이에 반해 인도출신의 스승에 의해 조직되어 1970년대부터 구미지역으로까지 확장된 Divine Light Mission의 사례를 보면 명상(Meditation), 집회(service)와 더불어 샷상이 중요한 영적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커뮤니티(D.L.M)의 지도자인 구루에 대한 헌신과 신입 구성원들을 좀 더 영적인 상태로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James V. Downtown, Jr., “An Evolutionary Theory of Spiritual Conversion and Commitment: The Case of Divine Light Miss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9, No. 4, 1980, p. 383.

33) <http://www.mooji.org> (공식 웹사이트), <http://mooji.satsangs.net/> (a source website of Moojis video satsang teachings)

34) <http://www.youtube.com/watch?v=IepIu3CbzXc&feature=related>

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반부의 강연과 후반부의 대화 혹은 문답 형식의 토론이 거의 모든 샷상의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강연과 문답이 공존하는 샷상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집회는 선불교의 상당시중과 비슷한 구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서구의 샷상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측면, 즉 유쾌한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스승이 적절하게 유머를 구사하거나, 혹은 참가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바로 지적해줌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의 눈물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 등에서 선문답 전통과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불교의 스승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깨달음을 일구어 냈을까. 선문답은 내용상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건들이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 진리를 두고 벌이는 긴장의 맥락 위에 있는 대화들이다. 따라서 선사들이 가려고 하는 고유한 목표 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 선문답이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 안에 있는 선문답에서는 샷상에서 나타나는 스승과 참가자 간의 정서적 공감과 위로, 웃음 등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선문답은 철저한 현장성과 즉문즉답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이미 그 생생한 가치를 잃게 되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선문답은 현장성과 일회성에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시공간을 떠난 범례로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즉문즉답의 현장성은 샷상에서의 지도자와 참여자 간의 즉흥적인 대화-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뚫으려 시도하는-의 성격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문답은 상당설법과 달리 1:1의 사제간 만남의 상태에서 혼신의 긴장을 담고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교육에 적용하기 힘들고 전통적인 도제교육 형식에서나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³⁵⁾ 따라서 바로 이 점이 샷상의 공동집회에서 나타난 즉시적 개방성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원 안의 모든 대중에게 개방되는 상당시중과는 달리 선문답은 그것이 선어록의 형태로 기록되어 당대나 후세의 학인들에게 읽히게 되는 때라야 비로소 개방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서술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문답과 샷상은 공통적으로 ‘치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선불교의 경우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무지를 일깨우고 자성을 바로 보는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무아(無我), 연기(緣起), 공(空)과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대승불교의 교의에 비추어 볼 때 지혜의 눈을 열어주는 스승의 가르침은 근본적 치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구의 샷상이 현실 안에서 인간이 겪는 갖가지의 문제와 인간적인 고통을 치유하려는 친절한

35) 조상식·이학주, 「선문답(禪問答)에 대한 교육현상학적 이해: ‘범례적 이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6집(한국교육철학회, 2006), p. 148.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선불교의 선문답은 인간의 원초적 무지를 해결함으로써 존재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깨달음과 치유의 레토릭: 트랜스미션(Transmission)과 돈오견성(頓悟見性)

선불교의 수증관에는 선원의 제도와 선맥의 개념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스승과 제자의 위계질서, 각종 제도와 규율들을 초극하는 것을 의미하는 서구식 자유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선에서 말하는 자유로움은 사원제나 법맥, 사제 간의 의존과 관계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생기를 발하는(活潑潑)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보다는 세상 안에서의 자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³⁶⁾

선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선정의 상태에 머무르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닌 사고와 시각의 전환이다. 이 전환의 도정에 선정주의가 있는 것이지 선이 단순히 그 고요한 평정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선정의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성을 바로 보는 지혜, 이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선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선의 존재의 당위성도 불투명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성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 지혜의 눈(慧眼)이 곧 깨달음이다.³⁷⁾ 그래서 선사들은 끊임없이 격외의 언어, 상식을 파괴하는 언행을 통해 굳어버린 사고의 방식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한 사람이 갖고 있던 현재까지의 생각이 무너지고, 생활을 규정하고 있던 모든 삶의 양태가 일시에 전복된다. 이제까지의 생각과 양태가 무너지고 전복된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재구축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음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1912)와 황벽희운(黃檗希運, 9세기)의 예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루는 천장사(天藏寺)에서 경허가 그 모친을 위하여 특별법문을 한다고 대중을 모아놓은 뒤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했다. 경허는 대중이 모여 있는 큰 방에서 어머니를 맞이하여 옷을 다 벗고 자신의 나체를 완전히 드러내 보였다. 당황한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법석을 박차고 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에 경허는 “내가 아주 어려서는 이 몸을 벌거벗겨 씻기며 안고 빨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실까.” 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³⁸⁾

36) 데일 라이트(Dale S. Wright), 윤원철 옮김,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Philosophical meditations on Zen Buddhism)』(지식과교양, 2011), p. 264.

37) 서명석, 앞의 책, p. 275.

38) 경허성우선사법어집간행회, 『鏡虛法語』(인물연구소, 1981), pp. 595-596.

어느 날 (황벽스님이) 법당에 오르니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에 ‘너희들은 뭘 구하는 것이나?’ 라고 하며 몽둥이를 휘둘러 흩어지게 하고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 찌꺼기나 먹은 놈들이니, 이렇게 행각을 하다가는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리라!”³⁹⁾

이러한 선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 이른바 격외의 무애행(無碍行) 뒤에 나오는 파열의 어법은 일상적인 경험의 질서를 부수게 되고, 기존 사고의 틀마저 파괴하게 된다. 선의 어법은 이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 언어가 질문에 답변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뒤집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도록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보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⁴⁰⁾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고 던져지는 선사들의 말과 행동, 즉 선문답이 곧바로 제자의 무지를 깨치고 나아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교육적 방편이 되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처럼 문답 내지 무애행, 참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곧바로 깨달음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돈오견성(頓悟見性)’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스승에게 법을 묻는 문법(問法) 혹은 문답의 방식을 통해 문득 자성을 깨닫게 되는 돈오는 혜능 수증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혜능이 말하는 깨달음(見性)은 오랫동안의 좌선간심 끝에 청정한 자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끝에 문득 깨달아(言下便悟) 자성을 보는 것이다. 말끝에 깨닫는다는 것은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다.

마조의 수증론 역시 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깨닫게(證悟) 된다는 수인증과(修因證果)를 부정하고, 직지인심에 의한 돈오견성을 주장한다. 확인은 깨닫고자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는 노력을 하고, 선지식은 설법과 문답에 의하여 직지인심의 가르침을 퍼서 깨달음의 싹이 나올 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전부이고, 무슨 특별한 방식의 수행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마조의 수증론 역시 혜능의 돈오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혜능보다 더욱 분명하게 수행이 깨달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¹⁾

깨달음이 열리는 것은 삶 그 자체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깨달음이 순수한 것이라면 개인의 정신적, 영적 삶에 혁명적인 비약(향상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⁴²⁾ 그렇다면 서구의 사상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깨달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상 지도자인 토니 파슨즈(Tony Parsons)가 커뮤니티의 집회 안에서 참여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39) 一日上堂大衆雲集，乃曰。汝等諸人欲何所求。因以棒趁散云。盡是喫酒糟漢怎麼行脚取笑於人。『景德傳燈錄』，大正藏，51: 2076, 0266b19 - 0266c16.

40) 데일 라이트(Dale S. Wright), 앞의 책, pp. 196-197.

41) 김태완, 앞의 책, pp. 291-292.

42) 서명석, 『선문답: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경서원, 2001), p. 189.

- ① ‘찾는 자(seeker)’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여행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영원성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록스타가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 ② 여기서 얘기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전적으로 이해의 명확성이지, 해방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 ③ 깨달음 이후에도 욕망과 야망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깨달음 이전에는 목표의 아이디어가 어떻게든 당신을 실현시키게 된다. 깨달음 이후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되면, 그 목표는 놀이의 다른 부분이 된다. 좀 더 빨리, 점 더 멀리 달리는 것이나, 좀 더 잘 그리는 것이 즐거워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증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다..⁴³⁾

인용문 중 ①에서 말하는 ‘찾는 자’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로 치환해도 의미가 통하리라 생각된다. ②의 인용문은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념과 사상, 신념 심지어는 깨달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고, 에고를 뒤로 놓아두고, 마음을 놓아두고,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고, 뭔가를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뉴에이지의 사고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버리고, 놓아두고, 포기하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체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의지가 있게 된다.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서면 거기에 의식, 무(無), 무아(無我), 공(空), 하나님 혹은 신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공이나 무아에 대한 뉴에이지적 이해이다. 거기에 덧붙여 이들은 모든 이가 이미 깨달은 존재라고 하는-우리는 단지 그것을 깨달을 뿐이라는-점을 명백하게 강조한다.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게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은 사람의 아이덴티티로 전환하는 회심의 과정은 한 개인의 재사회화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를 깨달은 자로 정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내면화하는 것이 수반된다.⁴⁴⁾

어떠한 형식과 설명을 취하든, 샷상 지도자의 가르침에 부응하여 구성원들이 깨달음 혹은 치유를 통해 기존과 다른 존재론적 변환(회심 혹은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내면화)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트랜스미션(transmission)이라고 부른다. 근년의 서구 뉴에이지 커뮤니티들은 바로 이 트랜스미션을 강조하며, 그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요가 기법을 응용한 단체 명상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명칭 자체를 트랜스미션 그룹(Transmission Group)으로 하고 있으며, 주 1회의 집회에서 라야요가(Laya yoga)와 카르마요가(Karma Yoga)를 융합한 트랜스미션 메디테이션(transmission meditation)을 실천하고 있다.⁴⁵⁾

온라인으로 e-satsang을 실천하고 있는 Dayalbagh 샷상 커뮤니티에서는 매주 최소 5인

43) <http://www.selfinquiry.org/docs/TonyParsons.pdf>

44) Frisk, Liselotte, 앞의 논문, pp. 72-73.

45) <http://www.transmissionmeditation.org/>

이상이 모여 방송국에 접속하는 형태로 샷상을 실천하고 있다. 라다 소아미 계열에 속하는 커뮤니티 중의 하나인 이들은 이 깨달음을 주게 되는 이들 샷상 자체를 transmission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명명의 사례는 또 다른 샷상의 지도자인 Shambhavi에게서도 발견된다.

샷상은 트랜스미션이다. Sri Anandamayi MA는 샷상에 참여한 결과로 직접적인 앎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트랜스미션의 상황 안에서는 스승의 말씀의 샷띠(Shakti)가 더 깊은 자기인식(Self-recognition)을 이끌게 된다.

샷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웃고, 말하고, 울고, 화내고, 이완하며, 최고의 상황 속에서 경이로움과 안도감을 체험하게 된다. 잠시 동안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로부터 해방된다. 심지어 샷상이 끝나도 이러한 체험이 유지되며, 천천히, 천천히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된다.⁴⁶⁾

인용문에 따르면 샷상이 진행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참여자로 하여금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만든다고 한다. 아울러 스승의 말씀이 참여자로 하여금 더 깊은 자기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상태(status)를 트랜스미션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트랜스미션은 본질적인 깨달음이자, 인간이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 내지 고통에 대한 치유의 장(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enmark Satsang Transmission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샷상을 실천하는 덴마크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transmission’을 “모든 존재의 토대에 있는 근원적인 신성임이 명백한 깊은 영적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한 힘”⁴⁷⁾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학술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샷상의 스승들이 자신의 직관과 경험, 학습 등을 토대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 샷상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정의하며,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실천한다는 점이다.

이제 정리하자면, 선불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으로서 선문답을 사용하게 되고, 그 이심전심으로 가르침이 전달되는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열리는 깨달음이 바로 언하변오, 돈오견성인 것이다. 샷상의 경우에는 참여자로 하여금 좀 더 깊은 단계의 고요함과 영적 개방성, 충족감을 가져다주며,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영적인 체험을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결국 돈오와 트랜스미션 모두 깨달음과 치유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전의 시각과 태도를 전환케 만드는 극적인 체험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6) <http://jayakula.org/what-is-satsang/>

47) http://alexvartman.com/The_New_Tantra/Calendar/Entries/2011/10/10 “Transmission” is a spiritual force that emanates from deep spiritual beings that are transparent to the underlying Divine Being that is at the foundation of all beings.

V. 결 론

삿상의 스승과 구성원들은 세간 안에서 바로 현재의 순간에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신앙 대신에 개인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출세간의 종교인 선불교 역시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선불교는 외견상 문자, 즉 교학을 배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쳐나는 선문답의 기록인 선어록들은 깨달음의 체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확장으로 생각된다. 공개된 가르침의 현장인 상당설법 역시 가르침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혜능과 마조 이후의 선종은 상당시중(上堂示衆)과 선문답(禪問答)이라는 공부 방법을 통하여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추구하는 선을 실천하게 된다. 이는 제자의 수준과 근기를 알아보는 스승의 혜안이 어느 한 순간에 제자의 마음을 관통하여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구도인 것이다.

삿상의 스승들은 그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삿상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공동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교단과 같은 제도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선불교의 스승들은 처음부터 사원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신이 속한 법맥의 전통에 근거하여 제자들을 교육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선불교의 경우 스승의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무지를 깨우는 깨달음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은 고통에 대한 근본적 치유에 해당된다. 서구의 삿상이 좀 더 실제적으로 인간이 겪는 갖가지의 문제와 고통을 치유하려는 친절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선불교의 선문답은 인간의 원초적 무지를 해결함으로써 존재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구조인 것이다.

삿상과 선불교 모두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으로서 문답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불교에서는 스승이 선문답을 통해 이심전심으로 가르침이 전달되는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깨달음이 열리는 현상을 언하변오, 돈오견성이라 이름 한다. 삿상의 경우에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서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영적인 체험을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돈오와 트랜스미션 모두 깨달음과 치유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깨달은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내면화시키는 체험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삿상과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가 깨달음과 본질적인 치유를 위한 교육의 장에서 만날 때, 문답법이라는 방법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발현되며, 창조적으로 확장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 『六祖壇經』(燉煌本).
『勅修百丈清規』.
『景德傳燈錄』.

〈단행본〉

- 경허성우선사범어집간행회. 『鏡虛法語』. 인물연구소. 1981.
김태완. 『祖師禪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2004.
서명석. 『선문답: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 경서원. 2001.
데일 라이트(Dale S. Wright). 윤원철 옮김.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Philosophical meditations on Zen Buddhism)』. 지식과교양. 2011.
Diana Eck. *Darsha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논문〉

- 김호귀. 「선문답의 현대적 해석 방식」. 『韓國禪學』. 제26호. 한국선학회. 2010.
서명석. 「선(禪)과 선문답(禪問答)이 교실 상담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유」. 『교육철학』. 제37집. 한국교육철학회. 2006.
조상식·이학주. 「선문답(禪問答)에 대한 교육현상학적 이해: ‘범례적 이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6집. 한국교육철학회. 2006.
인경(印鏡). 「공안선과 간화선」. 『철학사상』. 제2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정진희(혜달). 「공안의 표현형식과 지도법의 변화: 마조계 선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49집. 한국불교학회. 2008.
Daniel A. Foss and Ralph W. Larkin. “Worshiping the Absurd: The Negation of Social Causality among the Followers of Guru Maharaj Ji”. *Sociological Analysis*. Vol. 39, No. 2. 1978.
Frisk, Liselotte. “The Satsang Network”.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Volume 6, Issue 1. 2002.
Lawrence A. Babb. “The Physiology of Redemption”. *History of Religions*. Vol. 22, No. 4. Devotional Religion in India. 1983.
James V. Downtown, Jr. “An Evolutionary Theory of Spiritual Conversion and Commitment: The Case of Divine Light Miss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9, No. 4. 1980.
Sudir Kakar.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Healing: Siblings or Strang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3, No. 4. 1985.

〈기타 자료〉

<http://uarelove1.tripod.com/SRC.htm> (쉬리 라마나 커뮤니티 사이트)

<http://www.mooji.org> (구루 무지 공식 웹사이트), <http://mooji.satsangs.net/> (a source website of Moojis video satsang teachings)

<http://www.selfinquiry.org/docs/TonyParsons.pdf>

http://www.youtube.com/watch?v=7-_J_zJgP2A&feature=relmfu

<http://www.youtube.com/watch?v=tWj4n5VzI7w>

http://www.youtube.com/watch?v=v_IeEG29V3Y

<http://www.transmissionmeditation.org/>

<http://www.youtube.com/watch?v=IepIu3CbzXc&feature=related>

http://alexvartman.com/The_New_Tantra/Calendar/Entries/2011/10/10_Denmark_Satsang_Transmission_Training.html

<http://jayakula.org/what-is-satsang/>

<http://www.adyashanti.org>

원고접수 : 2012년 6월 9일 / 1차 심사 : 2012년 6월 22일 / 게재승인일 : 2012년 7월 18일

연구자소개 : 김성순

① 전공 : 종교학 / 소속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② 관심영역 : 동아시아 불교사

③ 주요논저 : 동아시아 염불결사 연구 -천태교단을 중심으로-

④ E-mail : shui1@naver.com

Abstract

Question-and-Answer Method for Enlightenment and Healing: Special Reference to Satsang and Sŏn Encounter Dialogue (禪問答)

Kim, Seongsoon

Wonkwang University

Members of the Satsang community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reaching enlightenment in this very moment, and place emphasis on personal experience. Sŏn Buddhism is generally considered a supramundane religion and also emphasizes enlightenment in daily life.

Teachers in the Satsang community establish spaces for communal life, but rarely has there been a case when they transformed these communities into a religious order. On the contrary, the transmission between a Sŏn master and disciple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the Buddhist temple, which is one of the aspects that distinguishes the Sŏn tradition from the practices of Satsang.

The aim of both Sŏn Buddhism and Satsang is to help students to breakthrough ignorance, and directly see the self-nature through innate wisdom. Both Sŏn Buddhism and Satsang highly celebrate the question-and-answer method as a way to lead students (or attendants) to enlightenment.

If the Satsang of the West is a teaching that focuses on healing problems and human suffering, then the Sŏn Encounter Dialogue can be considered an educational structure that heals ontological suffering by working through basic ignorance.

In Sŏn Buddhism, the Sŏn encounter dialogue leads to an instantaneous enlightenment experience brought about at the moment of mind-to-mind transmission, which is expressed as “ŏnhabyŏno” (Spontaneous enlightenment upon hearing a word). In the case of Satsang, a “transmission” is when a person engages in a question-and-answer with a teacher and discovers the root of the problem one harbors and thereby converts one’s attitude towards life through this spiritual experience.

Key words : Satsang, Sŏn Encounter Dialogue, Enlightenment, Transmission from mind-to-mind, ŏnhabyŏno (Spontaneous enlightenment upon hearing a word), To see the nature, Transmission